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KIA 홈 개막전 야구보러 갑시다

오늘 현대와…에서튼 선발
기념품 증정 등 행사 다채

"내년엔 광주에서 개막전을…."

KIA 타이거즈는 프로야구 출범 26년째를 맞은 지난 6일,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2007 정규시즌 개막전을 치렀다.

KIA는 2006년 홈에서 개막전을 치를 수 있는 4위의 성적을 냈지만, 지난 시즌 시작에 앞서 열린 8개 구단 단장단 회의에서 1~4위 팀중 서울연고팀이 없을 경우 흥행차원에서 4위팀이 서울에서 개막전을 치르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KIA가 프로야구 출범 이후 26년동안 정규시즌 개막전을 홈이 아닌 타 지역에서 치른 경우는 6차례에 불과하다.

3년 연속 타 구장에서 개막전을 치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년 연속도 지난해 외엔 없었다.

KIA는 4년 연속 타 구장에서 개막전을 갖는 수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올 시즌엔 최소 3위내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서정환 KIA 감독이 한국시리즈 진출을 꿈꾸는 것도 이같은 여러 이유를 담고 있다.

KIA타이거즈가 10일 오후 6시 30분 2007 프로야구 현대와의 홈 개막 3연전(10일~12일)을 시작으로 올 시즌 홈팬들에게 첫 인사를 한다.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진행되는 홈 개막식은 KIA 선수단의 올 시즌 한국시리즈 진출에 대한 필승 의지를 담은 개막식 선언과 함께 화려한 폭죽 불꽃쇼로 시작된다.

개막식 시구는 박광태 광주시장이, 시타는 정태석 광주은행장이 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앞선 식전 행사로는 오후 4시부터 90분간 열리는 연예인 야구단 '恨' 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야구팀인 'KIA모터스'의 초청경기가 눈에 띈다.

한편 KIA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입장객들에게 각종 기념품을 나눠주고, 경기 후 추첨을 통해 40인치 TV 1대와 백화점 상품권 5매, 디지털카메라 3대, 차량용 MP3 5개, 챔피온 안마기 5개, 영화관람권 100매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에 서 튼〉

잭 존슨이 9일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끝난 2007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뒤 전년도 챔피언 필 미켈슨으로부터 그린 재킷을 받아 입고 있다. 그는 2001년 선수가 아닌 갤러리로 입장권을 사서 마스터스를 처음 구경했고 그때 미켈슨의 플레이를 관전하기 위해 졸졸 따라다녔다. /AP=연합뉴스

우즈 역전 우승 실패

4년차 신예 잭 존슨 '그린 재킷'

대회 최종일

신(神)이 우승자를 점지한다는 마스터스 골프대회에서 올해 낙점을 받은 선수는 미국 아이오와주 시골출신의 미국프로골프투어 4년차 '신예' 잭 존슨(미국)이었다.

존슨은 9일(한국시간)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내셔널골프장(파72·7천445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골프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뽐어내 4라운드 합계 1오버파 289타로 정상에 올랐다.

존슨은 이븐파 72타를 친 타이거 우즈(미국)와 나란히 3타를 줄인 레티프 구센, 로리 사바티니(이상 남아공) 등을 2타차로 제쳤다.

2003년 2부투어 상금왕을 차지하며 2004년 PGA 투어에 합류한 존슨은 루키 시즌에 벨사우스클래식을 제패하는 등 기대를 모았던 선수.

라이더컵 미국대표로 출전하는 등 만만치 않은 실력을 지녔지만 2년째 우승컵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었고 이 대회 직전까지 세계랭킹은 56위에 PGA투어 상금랭킹 69위에 지나지 않아 마스터스 우승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6년 전인 2001년 오거스타내셔널에 경기 관람권을 사들고 찾아와 필 미켈슨(미국)을 졸졸 따라 다니며 구경했던 존슨은 미켈슨이 입혀주는 그린재킷을 걸치며 말을 잇지 못했다.

2005년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해 컷오프된데 이어 지난해 공동 32위에 머물렀던 존슨은 통산 네차례나 우승한 '골프황제' 우즈와 두 차례 US오픈 정상에 올랐던 구센 등 쟁쟁한 강호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난생 첫 메이저대회 제패의 감격을 누렸다.

289타는 1954년과 1956년 나왔던 대회 최다타 우승 기록과 타이이며 사상 세번째 오버파 우승.

존슨은 그러나 30여분이 지나서야 우승 세리머니를 할 수 있었다. 존슨이 18번홀을 마쳤을 때 우즈가 2타차 2위로 17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었기 때문.

그래도 존슨의 우승에는 경쟁자들의 자멸이 한몫했다.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우즈는 13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을 홀 1.5m에 붙여 이글을 잡아내며 존슨에 2타차로 다가 섰지만 15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을 물에 빠트려 주저 앉고 말았다.

존슨에 2타 뒤진 채 맞은 16번홀(파3)에서 버디 퍼트가 아깝게 홀을 외면하면서 우즈는 사실상 역전 우승의 꿈을 접어야 했다.

17번홀(파4)에서 버디 기회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우즈가 18번홀(파4)에서 홀 옆 3m 거리에 두번째 샷을 올리는 순간 존슨의 우승이 확정됐다.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내심 바랐던 '톱 10' 진입에 실패했다. 버디 1개에 더블보기 1개, 보기 3개 등을 묶어 4오버파 76타를 친 최경주는 공동 27위(12오버파 300타)로 순위가 떨어졌다.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한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은 공동 30위(13오버파 301타)를 차지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안방 6연전…초반기세 잡자

■ KIA 금주의 프로야구

"안방에서 초반 상승세 잡겠다."

올 시즌 잠실 개막 3차전에서 1패 뒤 2연승을 질주한 KIA가 이번 주 광주 안방에서 현대(10~12일), 삼성(13~15일)과 기분좋은 6연전을 치른다.

KIA는 10일 홈 개막전 선발로 '신입 용병' 세스 에서튼(32)을 출격시킨다. 에서튼은 지난 시범경기에서 3경기동안 방어율 0.73으로 호투,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투타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공동 2위로 올라선 KIA는 3연패로 부진한 현대와의 대결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KIA 타선은 LG와의 잠실 3연전에서 모두 14득점(1경기 평균 4.6점)을 올릴 정도로 화끈한 화력쇼를 보여주고 있다.

2경기 연속 투런포를 터트린 장성호(타율 0.300)와 이재주(타율 0.444), 홍세완(타율 0.333), 김상훈(타율 0.364) 등 중심 타자들의 타격감도 매섭다.

마운드는 '토종 에이스' 김진우가 2군에 머물러 있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8개 구단 가운데 최강의 전력을 자랑한다.

반면 현대는 팀 해체설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탓인지 시즌 초반 롯데에 3연패를 당하며 침체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즌 막강 화력을 자랑하던 타선은 전준호(타율 0.667)와 이숭용(0.300), 송지만(0.250)을 제외한 정성훈(타율 0.167) 등 나머지 타자들이 1할타에 허덕이고 있다.

◇프로야구 팀 순위 (9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롯데	3	0	0	1.000	-	3승
2	KIA	2	1	0	0.667	1.0	2승
2	삼성	2	1	0	0.667	1.0	1승
4	한화	1	1	1	0.500	1.5	1패
4	SK	1	1	1	0.500	1.5	1승
6	두산	1	2	0	0.333	2.0	1패
6	LG	1	2	0	0.333	2.0	2패
8	현대	0	3	0	0.000	3.0	3패

마운드도 팀내 '동명이인(同名異人)' 인 전준호가 10일 선발투수로 낙점됐지만, 한창 물이 오른 KIA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IA의 우세승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KIA로선 주말에 맞붙는 삼성이 고민거리다.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은 '영원한 우승 후보'라는 말처럼 녹록한 상대가 아니다.

다만 삼성이 개막 3연전에서 매 경기 박빙의 승부로 너무 힘을 뺀데다, SK와 인천 3연전 등 이번주 내내 힘든 원정경기가 예정돼 있는 게 위안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 새단장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이 10일 2007프로야구 정규리그 광주 홈 개막에 맞춰 조명시설 교체 등 새 단장을 마치고 팬들을 맞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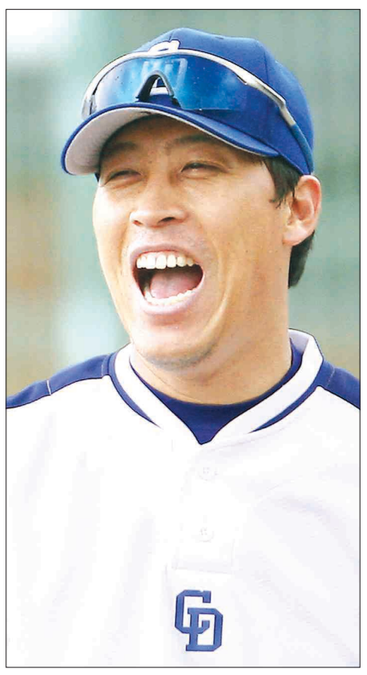
광주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9일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총 10억 6천만원을 투입, 조명시설과 관람석, 실내야구연습장 등을 개보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설치됐던 야구장 조명타워 6기 256개의 조명등은 총 사업비 6억 7천만원을 들여 전면 교체됐다.

이번 조명등 교체로 내야 마운드의 조도가 예전에 비해 두배 정도 밝기인 2천LX로 향상됐다. 또 쾌적한 관람여건 조성을 위해 7천200만원을 투입, 관람석 등에 대한 전면 도색도 마쳤다.

특히 지난 2005년 12월 22일 사상 최대의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던 실내야구연습장도 사업비 3억2천만원을 들여 새롭게 오픈, KIA 선수들의 훈련 여건도 크게 개선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병규 "하~하" 승엽 "허~참"

9경기 연속타 등 초반 호조 상대 투수들 견제에 주춤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타자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과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의 초반 페이스가 엇갈리고 있다.

타격감을 회복 중인 이승엽이 상대 투수에 따라 기복을 보인 반면 이병규는 개막전부터 9경기 연속 안타행진을 이어가며 꾸준한 기량을 과시 중이다.

4번 이승엽을 앞세운 요미우리는 5승4패로 센트럴리그 2위, 이병규가 5번으로 뛰고 있는 주니치는 7승2패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어 한국인 타자 맞대결은 양팀 성적과 궤를 같이 하며 시즌 내내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일본 진출 첫 해인 이병규의 초반 선전은 눈부시다. 그는 9경기를 치른 9일 현재 14안타로 이 부문 리그 2위, 타율 0.389로 공동 3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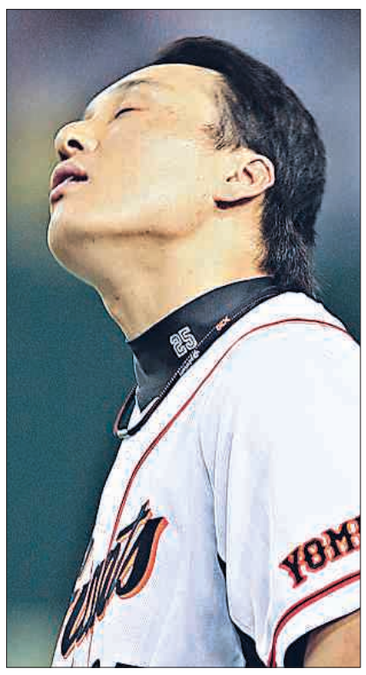
오치아이 히로미쓰 주니치 감독은 9일 스포츠전문지 '주니치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이병규를 계속 5번 타자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 첫 해 한국인 선수들을 괴롭혔던 고비는 분명히 찾아 올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일본 특유의 '현미경 야구'가 이병규의 욱일승천 기세를 그대로 지켜볼 리는 만무하다.

일본 진출 4년차를 맞은 이승엽은 "아직도 일본 야구가 녹록지 않다"고 말한다.

한편 지난주까지 타율 0.286에 2홈런의 평범한 성적을 유지 중인 이승엽은 바깥쪽을 집중 공략하는 상대 배터리의 볼 배합에 고전 중이다. 타격감도 완전치 않은 데다 견제는 더욱 심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

그러나 그는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다"며 여유를 잃지 않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